STATE OF NEW YORK | EXECUTIVE CHAMBER

ANDREW M. CUOMO | GOVERNOR

속보: 2012년 11월 5일

CUOMO 주지사, 월드트레이드센터 부지에서의 건설 작업 재개를 알리다

작업반원들이 9/11 기념관 및 박물관에서 양수작업을 완료하다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월드트레이드센터 부지에서의 건설 작업들이 재개되어 약 750명의 건설반원들이 그라운드 제로(Ground Zero)에서의 작업에 복귀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. 작업반원들이 현재 상당한 건설 작업을 재개하여 16 에이커 부지에 밀어닥친 폭풍 해일의 95% 이상을 빼냈습니다. 오늘은 허리케인 Sandy 발생 이후건설인부들의 작업 재개 외에도 주지사는 그라운드 제로에 들어선 국립 911원월드트레이드센터(One World Trade Center)와 PATH 트랜짓 허브에서 주요 크레인들이 사용되는 첫 날이기도 합니다.

기념관 및 박물관에서 진행되던 대대적인 양수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발표했습니다. 태풍이 몰아치던 월요일 밤, 약 1,600만 갤런 또는 7피트 높이의 물이 박물관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.

상황이 안전하게 자리잡자 곧장 뉴욕과 뉴저지의 항만관리위원회(Port Authority) 소속 작업반과 이곳의 계약업체들이 미육군공병단과 함께 24시간 내내 박물관에서 물 빼내기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. 이제 이들은 고립된 지역에 남아있는 물과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.

주지사는 토요일에 작업반들이 폭풍 해일이 들이 닥친 원월드트레이드센터, PATH 트랙베드 및 VSC(Vehicle Security Center)에서 양수 작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WTC 건설을 감독하는 항만관리위원회의 WTC 건설팀은 앞으로 24-48시간 내에 PATH 트랜짓 허브에서의 양수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. 이 허브는 이곳에서 아직도 진행 중인 마지막 주요 양수 작업 지역입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

Korean